영어어문교육 *제24권* 4호 2018년 겨울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에 대한 연구: 수준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김 혜 정
(국민대학교)

Kim, Hye Jeong (2018). A study of the function of formulaic sequences in specific contexts: With reference to learners of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4), 89-107.

This study examined the function of formulaic sequences (FSs) in specific contexts. It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learning of FS function on the FS acquisition of learners at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Acknowledging FS function and the varying proficiency levels of learners, this study established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former focusing on FS function and the latter on FS meaning. On the basis of these groupings, this study divided learners into four groups. FS function is categorized as mentioning conversation purpose, maintaining conversation, presenting conversation topic, discourse marker, conveying information.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using four tests and an open-ended questionnaire. This study found: (1)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meaning that learning FS function has an insignificant effect on FS acquisition; (2) learning FS function has little effect on completing FS forms; (3) at high levels, understanding FS fun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grasping the meaning of FSs in specific contexts. FS function is connected to understanding its meaning. As more and more teachers notice the pedagogical value of FSs, they must also recognize the necessity of FS acquisition and adopt it in their teaching activities in more various ways.

[formulaic sequences(FSs)/function/context/sitcom/different proficiency levels]

Ⅰ. 서론

영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라면 *Don't worry*나 *once upon a time, where do you come from?* 과 같은 표현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을 듣거나 보았을 때 의미를 즉각 이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다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 성분이 분석되지 않고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자동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표현을 정형화된 배열이라 한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처리되어 의미가 파악되는 개념을 학자들마다 루틴, 청크, 관습화된 형태, 조립식 패턴,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s), 숙어, 어휘 구문 등의 다양한 용어로 다르게 정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형화된 배열로 통일하여 칭하고자 한다.

개인의 스피치뿐만 아니라 구어와 문어에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어휘 항목은 정형화된 언어이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다. Ellis(2002)는 정형화된 언어는 어휘 청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연어를 한데 묶어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 하였다. 정형화된 배열이 언어 사용자의 장기 기억에 전체 단위로 잘 저장이 되면 이러한 배열은 단어 하나하나로 배열을 구성할 필요 없이 전체 덩어리로써 기억에서 소환될 수 있다(Conklin & Schmitt, 2008). 따라서 제 2언어 학습자가 정형화된 배열을 습득하고 장기 기억 속에 내재화 하고 있으면 언어를 사용하고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다. 제 2언어 학습자가 정형화된 배열에 의해 주어지는 이러한 처리 과정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학습자는 그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Boers & Lindstromberg, 2012).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 2언어 쓰기에서의 정형화된 배열의 사용과 평가(Nasiri & Khorshidi, 2015; Zhisheng, 2014), 유창성 장치로서의 정형화된 배열과 그 효과(Afzali, 2015; Guz, 2014), 정형화된 언어의 발달(Natsumi, 2014), 언어 사용에서 다단어 배열의 역할(Christiansen & Arnonc, 2017), 정형화된 배열이 전체적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처리 과정 입증(Jiang & Nekrasova, 2007) 등 분야도 다양하다. 이러한 다각적 연구 중 대부분의 경우 정형화된 배열의 발달과 처리 과정 또는 4기술과 연결된 학습 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의사소통적 상황 속에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정형화된 배열은 단 하나의 의미나 단 하나의 기능으로 자각”(Alali & Schmitt, 2012, p. 153) 되기 때문에 제 1언어와 제 2언어 모두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로 인해 정형화된 배열은 언어 습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McCarthy, 1998) 어디에나 존재하는(ubiquitous) (Carter, 2004) 속성을 지니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정형화된 배열이 빈도수 높게 사용되는 이유는 정형화된 배열이 의사소통 속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atch out!*은 경고의 기능을 담고 있고 *how are you?*는 인사일 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 유지를 위한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정형화된 배열을 익혀두는 것이 의사소통 상황에 얼마나 유용할지는 매우 자명하다. 결국 관습화된 언어(즉 정형화된 배열)는 반복되는 의사소통적 요구를 자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Nattinger & DeCarrico, 1992)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내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습자 집단을 수준별 집단으로 구성하여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의 학습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언어적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기능의 학습이 정형화된 배열의 통사적 형태나 상황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함께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의 학습이 수준별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의 학습이 그것의 형태와 상황적 의미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무엇인가?
3.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수준별 학습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스피치 처리 과정의 관점에서 정형화된 배열의 사용은 언어 처리를 더욱 자동화되게 만든다. Ashcraft(1994)와 Ellis(2002)에 의하면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기억에 더욱 강하게 저장되며 강인하게 저장된 기억은 머리 속 저장소에서 그 정보를 쉽게 훨씬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높은 빈도수의 단어에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학습자들의 스피치 속도가 증가하고 일시 정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Ejzenberg(2000)는 유창한 화자와 유창하지 못한 화자가 어떻게 정형화된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비교하였는데, 그녀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창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문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반면 유창한 학습자들은 조립형 청크(prefabricated chunks)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언어처리의 자동화를 앞당기고 유창성에 도움이 되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그것의 기능을 함께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Bardovi-Harlig, Mossman, 그리고 Vellenga(2014)는 아카데믹한 토론에서 사용되는 루틴의 화용적 기능, 즉 동의하기, 반대하기, 명확하게 설명하기에 대한 습득과 지도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실험반 26명, 통제반 11명으로 나뉘어 50분씩 총 4번의 수업이 시행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루틴의 화용적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자각하기와 생성하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전/사후 테스

트 결과 실험반의 경우 화행(speech acts)과 수업 시간에 학습한 표현을 생성해 내는 능력이 증가하였고 루틴의 화용적 기능을 지도하는 것이 말하기에서 루틴 사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Nattinger와 DeCarrico(1992)는 정형화 배열의 정의를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그것의 기능을 기반으로 기술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정형화된 배열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대화 주제 나타내기 기능, 담화표시 장치의 기능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위범주는 대화 유지와 대화 목적으로 구성된다. 대화 유지하기에는 부르기(예. *how are you; I didn't catch your name*), 명확하게 하기(예. *what did you mean by X?*), 말할 차례 바꾸기(예. *could I say something here?*)가 포함되고 대화 목적 언급하기에는 질문하기(예. *do you X?*), 거절하기 (예. *I'm sorry but X*), 공감 표현하기(예. *I'm very sorry to hear about X*)가 포함된다. 다음 기능인 대화 주제 나타내기에는 자전적 얘기(예. *my name is ___*), 시간(예. *what time X; a ___ ago*), 장소(예. *what part of the ____?*), 날씨(예. *it's (very) ___ today*)가 포함된다. 마지막 기능인 담화 표시 장치에는 시간 연결사(예. *the day/week/month/year before/after ____*), 예증(예. *in other words; it's like X*), 요약(예. *to make a long story short; my point (here) is that X*)이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Schmitt와 Carter(2004) 또한 정형화된 배열이 나타내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은 사회 연대감 표시하기(예. *yeah it is*), 아이디어 메시지 전달하기(예. *The early bird gets the worm*), 담화 구조 표시하기(*on the other hand*), 특정 정보 전달하기이다.

정형화된 배열이 의사소통 전략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언어적 분석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단위(Bolander, 1989)의 청크들은 목표어와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청크들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atch, Peck, 그리고 Wagner-Gough(1979)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배열을 반복하고 모방하면 그 배열에 대한 이해 없이도 학습자들은 언어학습의 의사소통적 측면에 빠르게 돌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rdovi-Harlig와 Vellenga(2012)는 문맥이 제공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초화용적 기능을 자각하도록 학습시켰다. 수업 교재로 미국의 유명 시트콤인 *Friends*를 이용하여 3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다양한 기능이 담긴 관습적 표현을 지도하였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자각하기 활동을 통해 정형화된 배열의 사회화용적 기능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기능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기간, 대상, 수업 교재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15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울에 위치한 00 대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영어 수업에서 실시되었다.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이루어졌으며 한 번의 수업은 75분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수준별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의 습득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임의로 두 개 반을 설정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정하였다. 두 개 반 모두 수준별 집단을 각각 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토익 성적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대학의 경우 1학년 신입생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모의 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토익 성적을 참조하였고 본 연구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토익 성적 중에서도 어휘 파트의 성적을 위주로 참조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첫 날 수업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간단한 정형화된 배열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전 테스트는 토익의 독해 지문에서 빈도수 높은 정형화된 배열이 포함되어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특정 어휘의 뜻을 질문하는 문제로 별도 구성하였으며 전체 객관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독해 단락과 보기가 주어지고 정형화된 배열의 구성 단어나 문맥에 맞는 의미를 묻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각 문항을 1점으로 처리하여 15점 만점으로 채점 처리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 두 상위집단의 시험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t = 2.75, p = .179), 두 하위집단의 시험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2.18, p = .153). 토익 성적과 정형화된 배열 사전 테스트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실험반과 통제반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반과 통제반의 토익 성적과 FSs 사전 테스트 평균

집단	수준별	인원	토익 (점수 대)	사전 테스트 (평균)
실험반 (37명)	상위집단(A)	17명	800 이상	11.52
	하위집단(B)	20명	400~500	5.49
통제반 (40명)	상위집단(C)	21명	800 이상	12.03
	하위집단(D)	19명	400~500	5.18

본 연구는 학습 교재로 시트콤 *The Office*를 활용하였다. *The Office*는 제지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이 겪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갈등과 그에 따른 해결이 제시된다. *The Office*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는 정형화된 배열이 이야기 전개 내내 산재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 판단된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수업 절차는 수업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었다. 수업 1단계는 준비 단계로 먼저 그날 학습할 장면의 영상을 자막과 함께 시청한다. 그런 후 교수자가 준비한 영상 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그날 학습할 부분의 영상 줄거리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수업 2단계는 특정 문맥 속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배열 학습하기 단계이다. 실험반에서는 조별로 정형화된 배열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한 후 문맥 속에서 사용된 특정 기능을 함께 찾아보고 추론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조별 활동 이후 교수자는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을 명시적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형화된 배열의 5가지 기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고 답을 함께 공유한다. 통제반에서는 실험반에서 주목한 것과 동일한 정형화된 배열을 다룬다. 학습자들에게 특정 장면 속에서 사용된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의미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학습한 정형화된 배열의 습득을 도모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그날 학습한 장면을 조별로 역할극을 수행하도록 한다. 역할극 연습을 하는 동안 그날 주목했던 정형화된 배열을 직접 생성해보고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도록 한다. 수업 3단계에서는 정형화된 배열 총정리 단계이다. 교수자는 PPT 자료를 통해 실험반에서는 그날 학습한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에서 쓰인 특정 기능을, 통제반에서는 그것의 문맥적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런 후 자막 없이 그날 학습한 영상 장면을 다시 한번 시청한다. 영상을 시청할 때 그날 학습한 정형화된 배열에 주목해서 듣도록 명시한다. 이상 실험반과 통제반의 실험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수업 절차 3단계

단계	실험반	통제반
수업 1단계	-*The Office* 영상보기 (자막 포함) -특정 장면에 대한 간단한 퀴즈 -줄거리 & 내용 이해	

수업 2단계	-특정 장면 속 정형화된 배열 학습하기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 파악에 주력 (명시적 학습) -역할극	-특정 장면 속 정형화된 배열 학습하기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와 우리말 해석에 주력 (명시적 학습) -역할극
수업 3단계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정리 및 마무리 -영상 다시 보기 (자막 불포함)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정리 및 마무리 -영상 다시 보기 (자막 불포함)

3.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본 연구의 목적은 정형화된 배열에 대한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을 습득하고 장기적으로 내재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목표 언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L2 학습자를 위해 Nattinger와 DeCarrico(1992), 그리고 Schmitt와 Carter(2004)가 제시한 바 있는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분류를 혼합하여 참조하였다. 이들의 기능 분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5가지 범주는 대화 목적 언급하기, 대화 유지하기, 대화 주제 나타내기, 담화 표시 장치, 그리고 정보 전달하기 기능이다. *The Office*의 대부분 내용이 직원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범주화 할 때 Nattinger와 DeCarrico(1992)가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의 하위범주로 포함시켰던 대화 목적 언급 기능과 대화 유지 기능을 각각 별도의 기능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대화 목적은 표현의 통사적 형태와는 상관없이 화자의 말하는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대화목적 언급하기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업 중 “*Can you read it?*”이라고 말했다고 치자. 이럴 경우 이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이건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읽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이럴 경우 이 표현은 대화 목적 언급하기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실험반의 수업은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이러한 기능 설명이 함께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아래 대화는 *The Office*의 한 부분(시즌5, 에피소드8)이다. 회사의 공공 물건인 전자렌즈를 직원들이 너무 더럽게 사용하고 치우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Pam은 공공의 물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설명하는 메모를 익명으로 전자레인지에 붙여놓는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에 대해 오히려 반발심을 가지게 되고 Pam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의 약혼자인 Jim은 그녀만큼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런 그가 그녀는 서운하기만 하다.

Pam: 1)**When it comes down to it,** it's a health issue. I should have written that.
Jim: Mmm, yeah.
Pam: Why aren't you as mad or interested in this as me?
Jim: Oh totally. 2) **Sorry, are we talking about the microwave still**?
Pam: Are you inching away from me?
Jim: No. (중략)
Michael: Pamtown lady sing this song, doo-dah doo-dah. Hello, Pam.
Jim, 3)**may I have a moment with Pam,** please.
Jim: Yes, I just have to take this call anyway so...

자신이 익명으로 붙인 메모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다른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 Pam은 이 일을 단순히 전자렌즈에 대한 일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이슈화 시키고 싶어 한다. 그녀가 사용한 1)*When it comes down to it*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라는 뜻으로 담화표시 장치로 분류하였다. 자신만큼 이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Jim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자 Pam은 사과와 함께 대화 주제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따라서 2)*Sorry, are we talking about the microwave still?*은 Pam의 대화 주제를 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므로 대화 유지 기능이다. 이러한 간단한 대화가 두 사람 간에 오가는 사이에 지점장인 Michael이 나타나고 Pam과 단 둘이 대화하고 싶어 한다. Michael이 3)*may I have a moment with Pam*은 Pam과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 것이지만 이 발화의 의도는 Jim에게 자리를 잠시 비켜달라는 것이므로 대화 목적 언급하기 기능으로 분류된다.

4. 평가 도구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의 학습이 수준별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4차례의 테스트와 1차례의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테스트는 수업 4주차, 2차 테스트는 수업 8주차, 3차와 4차 테스트는 수업 10주차에, 마지막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는 수업 11주차에 진행되었다. 1차와 2차 테스트는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을 제대로 습득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와 2차 테스트는 기능 파악에 주력한 실험반과 상황 속 의미 해석에 주력한 통제반의 학습 방식이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동일한 형식으로 시험을 치뤘다. 총 20문항으로 출제되었으며 문제는 문맥에 맞게 표현 재배열하기, 문맥에 알맞은 정형화된 배열 선택하기, 주어진 정형화된 배열과 관련된 문맥 파악하기, 문맥에 맞는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파악하기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각각의 유형은 분리되어 별도로 제

시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대화 지문에서 혼합되어 함께 제시되었다.

학습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어휘형태를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의 형태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한다(de Bot, Paribakht, & Wesche, 1997). 즉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만 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형태를 인지하고 그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차 테스트와 4차 테스트는 동일한 날에 시행되었고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차 테스트는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를 쓰도록 하는 테스트이고 4차 테스트는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파악하는지를 질문하는 테스트이다.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와 의미에 각각 중점을 두기 위해 시행되었다. 3차 테스트는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를 제대로 습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와 기능이 함께 제시되고 그에 맞는 배열 표현을 써보도록 하였다. Barcroft(2003)의 LPSP_written기준을 적용하여 전체를 알맞게 썼을 경우 1점이 부여되고 반 이상의 표현을 완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0.5점을 부여하였다. 4차 테스트는 문맥 속에서 제시된 특정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를 쓰도록 하였고 정확한 의미일 경우 1점이 부여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흐름을 파악하고 해석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0.5점을 부여하였다. 먼저 1차 테스트의 문항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차 테스트의 문항 예시

문제 유형	1차 테스트
	[12-14] Ryan이 회사 비서로 다시 돌아온 후, 예전 여자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Kelly와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랜만에 만난 이후의 첫 대화입니다. 아래 두 사람의 인사 이후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밑줄 친 부분은 수업 시 정형화된 배열로 배웠던 부분입니다.)
문맥에 맞게 표현 재배열 하기 &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Ryan: Kelly. Kelly: Oh, hello Ryan. You look well. (12.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 ____) a. Catch up. **Pick me up around eight?** b. I think I never fully processed 9/11. **c. I wanted to say I'm sorry** for treating you bad the past couple years. d. I was in my mid twenties and 13. **I was going through a lot of stuff**. e. **We should get a drink later.** f. Um I want you to know I've changed. Kelly: Oh that is so sweet. But I'm dating Darryl, still, **we're like** (14. ____) **in love.** Ryan: That... cool. Well maybe I'll see you around. Kelly: It's a small office.

12.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내용에 맞게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13. 밑줄 친 부분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앞에 한 말을 부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질풍 노도 같았던 20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뜻을 쓰시오. _____

14. Kelly의 은근히 복수하는 말로 '우리는 너무 사랑해' 의 강조된 표현으로 문맥상 의미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주어진 정형화된 배열과 관련된 문맥 파악하기 & 정형화된 배열 선택하기

[17-20] 다음 대화를 보고 질문에 알맞게 답하시오.

Pam: 17.**When it comes down to it, it's a health issue.**
I should have written that.
Jim: Mmm, yeah.
Pam: Why aren't you as mad or interested in this as me?
Jim: Oh totally. Sorry, are we talking about the microwave still?
Pam: 18.**Are you inching away from me?**
Jim: No. (중략)
Michael: Pamtown lady sing this song, doo-dah doo-dah.
Hello, Pam. 19._____
Jim: Yes, I just have to take this call anyway so...

17. Pam이 밑줄 친 부분처럼 말한 이유를 쓰시오. (문맥 설명할 것)

18. Pam이 Jim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를 내용에 맞게 쓰시오.

19. 상황에 맞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배열 표현으로 적합한 것은?
a. Jim, you know, I'd like to have a break for Pam.
b. Jim, may I have a moment with Pam please.
c. What do you think Pam needs some rest, Jim?

다음은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에 중점을 둔 3차 테스트와 정형화된 배열의 상황적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 4차 테스트의 문항 예시이다.

표 4

3차 & 4차 테스트 문항 예시

문제	3차 테스트
	[9-11] 다음은 Angela를 가운데 두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Dwight와 Andy의 대화입니다. Dwight는 Cornell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Andy를 자꾸 놀려댑니다. 내용에 맞게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표현을 쓰시오.
정형화된 배열 형태 쓰기	Dwight: Hey there. So how do you think 9.**we're gonna (　　) (　　) Penn** this year? Nathan Ford's arm looks pretty strong. 올해 Penn 대학에 대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기능: 대화주제 나타내기)
	Andy: Well he's had a pretty good season so far... Stop saying "we". You did not go to Cornell. Okay, 10.**you're just doing this to (　　)(　　) (　　)**. 그쪽은 나 놀리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기능: 대화 유지)

Dwight: Not so. Cornell is an excellent school. Without its agricultural program, we probably wouldn't have cabbage. At least not modern cabbage.

Andy: I know it's an excellent school, Dwight. I went there. My blood runs Big Red.

Dwight: Someday, 11. **we'll both (　　) (　　) in Comstock Hall and just (　　) (　　) all of this.**
Comstock Hall에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며 웃자고
(기능: 대화 유지)

4차 테스트

[5-7] 다음은 다른 주로 이사 가는 Holly와 그런 그녀를 도와주려고 온 Michael과의 대화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쓰시오.

정형화된 배열 의미 파악하기

Michael: What's the matter?
Holly: 5.**It's not gonna work.**
Michael: Sure it is.
Holly: there's too much distance. ...(중략) Michael, we've only been dating each other for a few weeks.
Michael: Listen to me. I like you so much .. (중략) I've dated almost four women, and 6.**you are so far above them**, it's stupid.
Holly: Michael. Don't. Don't. 7.**Don't make it harder than it has to be.**
Michael: That's what she said. (Interview) Holly thinks that this relationship is over. Well, you know what? I am not gonna give up that easy. I'm gonna make this way harder than it needs to be.

5.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오. _____

6.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오. _____

7.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오. _____

Ⅳ. 결과 및 분석

1.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

정형화된 배열의 대화 속 기능의 학습이 그것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된 1차와 2차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별로 맞은 개수로 평균을 산출하였다.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학습한 실험반과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파악에 주력한 통제반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학습을 비교하기 위해 SPSS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고 먼저 1차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수준별 집단의 1차 평가 결과

수준	집단	인원	*M*	*SD*	평균 차 (실험-통제)	*t*	*p*
상위 집단	실험반 A	17	13.15	3.85	-0.69	.924	.863
	통제반 C	20	13.84	3.71			
하위 집단	실험반 B	21	5.72	3.49	0.7	1.042	.715
	통제반 D	19	5.02	3.69			

*p < .05

위 표를 보면 실험반 A집단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 평균(M = 13.15)은 통제반 C집단의 학습 평균(M = 13.84)보다 0.69점 낮게 나왔지만 이 결과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p = .863). 하위집단을 살펴보면 실험반 B집단의 평균(M = 5.72)이 통제반 D집단의 학습 평균(M = 5.02)보다 0.7점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집단과 마찬가지로 하위집단의 결과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p = .715). 결국 이러한 결과는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의 습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1차 테스트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2차 테스트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SPSS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수준별 집단의 2차 평가 결과

수준	집단	인원	*M*	*SD*	평균 차 (실험-통제)	*t*	*p*
상위 집단	실험반 A	17	14.72	3.81	0.77	.983	.875
	통제반 C	20	13.95	3.59			
하위 집단	실험반 B	21	6.01	3.86	0.42	.973	.794
	통제반 D	19	5.89	3.97			

*p < .05

두 집단의 상위집단을 살펴보면 실험반 A집단의 정형화된 배열 학습 평균(M = 14.72)은 통제반 C집단의 학습 평균(M = 13.95)보다 0.77점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집단의 결과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p = .875). 두 집단의 하위집단을 살펴보면 실험반 B집단의 평균(M = 6.01)이 통제반 D집단의 학습 평균(M = 5.89)보다 0.42점 높게 나타났다. 하

지만 하위집단의 결과 차이 또한 상위집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p = .794). 1차 테스트 결과와 마찬가지로 2차 테스트 결과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학습형태는 상위집단이든 하위집단이든 수준별 학습자들의 정형화된 배열 습득과 내재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3차 테스트 결과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그것의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습득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문항으로 구성된 3차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와 기능을 함께 제시하고 그에 알맞은 배열 표현을 쓰도록 하였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뉘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SPSS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고 3차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수준별 집단의 3차 평가 결과

수준	집단	인원	M	SD	평균 차 (실험-통제)	t	p
상위 집단	실험반 A	17	7.95	2.83	0.67	1.194	.794
	통제반 C	20	7.28	2.79			
하위 집단	실험반 B	21	2.56	2.51	0.32	1.285	.562
	통제반 D	19	2.24	2.63			

*p < .05

위 표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위집단 실험반의 평균(M = 7.95)이 상위집단 통제반의 평균(M = 7.28) 보다 0.67점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p = .794). 다음으로 하위집단을 살펴보면 실험반 B집단의 평균(M = 2.56)은 통제반 D집단의 평균(M = 2.24) 보다 0.32점 높게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p = .562). 이것은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 학습이 정형화된 배열의 통사적 형태를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문맥 속에서 배열이 지니는 특정한 기능이 그것의 형태를 내재화하는 데는 직접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4차 테스트 결과

문맥 속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이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차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화 상황이 주어지고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알맞은 의미를 쓰도록 하였다. 통제반과 실험반의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통틀어 전체 4개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SPSS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였고 4차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수준별 집단의 4차 평가 결과

수준	집단	인원	M	SD	평균 차 (실험-통제)	t	p
상위 집단	실험반 A	17	9.79	1.35	1.26	1.547*	.000
	통제반 C	20	8.53	1.18			
하위 집단	실험반 B	21	2.61	1.62	-0.17	1.132	.087
	통제반 D	19	2.78	1.48			

*p < .05

4차 테스트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상위집단의 경우 실험반 A집단의 평균(M = 9.79)이 통제반 C집단의 평균(M = 8.53)보다 1.26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이는 상위집단의 경우 주어진 문맥 속에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범주화 하고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하위집단의 경우 실험반 B집단의 평균(M = 2.61)은 통제반 D집단의 평균(M = 2.78)보다 0.17점 낮게 나왔으나 이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p = .087). 정형화된 배열의 다양한 기능을 학습하고 파악하는 것이 하위 집단에게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재화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위집단의 경우 배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것의 기능을 크게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설문조사 결과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의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업 11주차에 실험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한 문항이며 “정형화된 배열을 배우는데 문맥 속에서 쓰인 5가지 기능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가 제시되었다. 주관적 답변이므로 답변 결과는 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분류하였다. 답변 중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은 3회 이상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올 경우 채택하였고 예를 들어 만족도는 보통이고 이유는 그냥 좋았다는 식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답변은 의견 채택에서 제외하였다. 만족과 불만족의 명확한 이유가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개방형 설문 조사 결과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의견
-만족합니다.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알면 영상 속에서 여러 캐릭터들이 그렇게 말한 의미가 더 와 닿습니다.
-모르는 것 보다 아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지요. 의미만 아는 것 보다 그게 쓰인 기능을 알면 이해가 더 쉽게 되니깐요.
-매우 만족. 영어 보고 해석하는 거는 질렸는데 영상 속에서 그게 쓰인 기능이 뭔지를 토론해보고 의견 교환하는 건 나름 신선했고 대학 와서 수준 있는 강의 듣는 느낌이 들었다.
-오피스에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드와이트 대사는 그 말이 쓰인 기능을 알아야 완전 이해가 된다.
-의미만 아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대화 속에서 그게 이런 이유로 쓰였다는 설명을 들으면 내가 외국인이랑 그럴 때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새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 같아서 좋았어요.
-기능을 알면 의미가 훨씬 쉽게 파악됩니다.
-마이클이랑 드와이트 대화는 대박~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무조건 그 말이 쓰인 기능을 알고 들어야 훨씬 재미있고 대사가 찰진 걸 알 수 있다.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의견
-불만족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어랑 그 의미 파악하기도 힘든데 기능도 설명하니깐 따라 가기 버거웠습니다.
-덩어리 표현의 기능을 아는 건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표현을 외워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니까 표현을 많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닥 만족하지 못함. 표현을 알아서 그걸 써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기능까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정도면 충분할 거 같은데요. 굳이 구체적인 기능까지 몰라도 영화 보고 이해하는 데는 힘들지 않거든요.
-덩어리 기능을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 게 힘이 되겠지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많은 표현을 익히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수업 활동 개발에 더 주력해 주시면 좋겠다.
-불만족. 굳이 기능 몰라도 배운 표현 써먹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돼서요.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이 시트콤 속 캐릭터들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독특한 성격을 보이는 상사인 Michael이나 그의 부하직원인 Dwight 의 대사는 그 기능을 알고 봐야 훨씬 재미있고 그 대사의 의도가 파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영어 의미와 해석에 중점을 두는 학습에 질린 학습자의 경우 신선한 학습이라 느끼기도 하였다.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대화의 기능을 아는 것이 요즘 학습의 추세라 만족한다는 학습자도 있었다.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해 만족하는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이 등장인물들간의 대화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대화 기능을 아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맥적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굳이 나쁠 건 없지만 배열 표현을 이해하고 내재화하는 데는 기능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들은 여러 다양한 표현을 익혀서 실제 외국인과 만났을 때 배운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이런 경우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기능을 파악하는 것 까지는 학업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학습시킬 시 그것이 대화에서 쓰이는 역할과 그것의 역할을 아는 것이 대화를 이해하고 이어가는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형화된 배열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문맥 속에서 작용하는 그것의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준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그것의 통사적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트콤 *The Office*를 활용하였고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중점을 두는 실험반과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파악에 주력한 통제반을 설정하였고 두 반을 각각 상위집단(A, B집단)과 하위집단(C, D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별 학습 이후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파악이 그것의 습득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차와 2차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3차 테스트를,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파악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4차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와 2차 테스트 결과, 특정 문맥 속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 학습은 학습자 수준별 집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문맥 속 기능에 대한 학습 여부가 정형화된 배열의 습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형화된 배열의 형태 습득에 중점을 둔 3차 테스트 결과 학습자 수준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 4차 테스트에서는 학습자 수준 집단 중 상위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정형화된 배열이 지니는 문맥 속 기능의 학습이 그것의 통사적 형태를 습득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 학습과 관련하여, 상위집단의 경우 문맥 속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정형화된 배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형 설문조사의 결과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특정 등장인물들의 대화 흐름과 그 인물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배열 표현과 그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기능을 알고 모르고가 배열 학습에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을 학습시킬 시, 의미와 기능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대화의 흐름과 정형화된 배열이 대화 속에서 하는 역할을 학습자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한 학기 일정이라는 시간의 제한과 다양한 시트콤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수준별 집단에서 중위권 학습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정형화된 배열의 개념과 그 기능을 학습자들에게 자각시키고 수준별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배열 학습에 접근할 경우 그들에게 맞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콤이라는 학습 자료에 맞춰서 정형화된 배열의 문맥 속 기능을 총 5가지로만 분류하여 적용하였는데 언어적(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정형화된 배열의 기능과 역할을 다각도로 적용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차후의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학습 자료와 그에 맞는 다각도의 접근법으로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제 2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정형화된 배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습 방안이 활발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fzali, H. (2015). The effect of practicing formulaic sequences on speaking fluency of Iranian EFL learners. *Indian Journal of Fundamental and*

Applied Life Sciences, 5(S4), 330-342.

Alali, F., & Schmitt, N. (2012). Teaching formulaic sequences: The same as or different from teaching single words? *TESOL Journal, 3*(2), 153-180.

Ashcraft, M. (1994). *Human memory and cognition*. New York, NY: Harper Collins.

Bardovi-Harlig, K., Mossman, S., & Vellenga, E. H. (2014).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pragmatic routines in academic discussion. *Language Teaching Research, 19*(3), 324-350.

Bardovi-Harlig, K., & Vellenga, H. E. (2012).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conventional expressions in L2 pragmatics. *System, 40*(1), 77-89.

Boers, F., & Lindstromberg, S. (2012). Experimental and intervention studies on formulaic sequences in a second language.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2*, 83-110.

Bolander, M. (1989). Prefabs, patterns and rules in interaction? Formulaic speech in adult learners' L2 Swedish. In K. Hyltenstam & L. Obler (Eds.), *Bilingualism across the lifespan: Aspects of acquisition, maturity and loss* (pp. 73-8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R. (2004). *Language and creativity: The art of common talk*. London: Routledge.

Christiansen, H. M., & Arnonc, I. (2017). More than words: The role of multiword sequence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Topics in Cognitive Science, 2017*, 1-10.

Conklin, K., & Schmitt, N. (2008). Formulaic sequences: Are they processed more quickly than nonformulaic language by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Applied Linguistics, 29*(1), 72-89.

de Bot, K., Paribakht, S. T., & Wesche, B. M. (1997). Towards a lexical processing model for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Evidence from ESL reading. *SSLA, 19*(3), 309-329.

Ejzenberg, R. (2000). The juggling act of oral fluency: A psycho-sociolinguistic metaphor. In H. Riggenbach (Ed.), *Perspectives on fluency* (pp. 287-314).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Ellis, N. (2002). Reflections on frequency effects in language process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4*(2), 297-339.

Guz, E. (2014). Formulaic sequences as fluency devices in the oral production of native speakers of Polish. *Research in Language, 12*(2), 113-129.

Hatch, E., Peck, S., & Wagner-Gough, J. (1979). A look at proces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E. Ochs & B. Schieffelin (Eds.),

Developmental pragmatics (pp. 269-277). New York, NY: Academic Press.
Jiang, N., & Nekrasova, M. T. (2007). The processing of formulaic sequences by second language speaker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1*(iii), 433-445.
McCarthy, M. (1998). *Spoken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siri, M., & Khorshidi, S. (2015). Dynamic assessment of formulaic sequences in Iranian EFL learners' wri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Applied Linguistics, 1*(Special Issue: Challenge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Iran), 26-32.
Natsumi, O. (2014). The development of formulaic language in L2. *The Tsuru University Review*, *79*, 43-57.
Nattinger, J. R., & DeCarrico, J. S. (1992).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chmitt, N., & Carter, R. (2004). Formulaic sequences in action: An introduction. In N. Schmitt (Ed.), *Formulaic sequences* (pp. 1-22). Amsterdam: John Benjamins.
Zhisheng, W. (2014). "Comfortable fossilization" Chinese EFL learner's acquisition and use of formulaic sequences in L2 writing. *Estudos Anglo Americanos, 42*, 37-5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김혜정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02707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1213호
Email: naa4907@kookmin.ac.kr

Received in October 16th, 2018
Reviewed in November 27th,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8